

## 영인프런티어, 임시주주총회 연기

<2019-12-09> 과학기술 바이오 선도기업 영인프런티어(036180, 대표이사 김준성)는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임시주주총회를 2020년 1월 3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영인프런티어는 최근 주가급변동과 이를 유발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회사 자체의 신규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인프런티어는 최근 확정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이전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연구용역사업 ▲진단관련 시약 및 기기개발, 제조 및 판매업 ▲연구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입 및 투자사업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사업 등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현가능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를 사내 외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며 이러한 대책안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영인프런티어 김준성 대표는 “최근의 주가급락 등으로 주주들에게 본의 아닌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 며 임직원 모두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임하겠다” 고 전했다.

영인프런티어는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했다.